

의복스타일과 색상·톤조합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김윤경·강경자

경상대학교 생활과학부 의류학전공

The Effect of Clothing Style and Color, Tone Combination on Impressions Formation.

Yun-Kyoung Kim · Kyung-Ja Kang

Dept. of Clothing & Textiles, Gyeong Sang National University
(2002. 10. 11.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effect of clothing style and color, tone combination on impressions formation. The experimental materials developed for this study are a set of stimuli and response scale(The 7-point semantic). The stimuli are 36pictures manipulated with clothing style, color and tone variation by computer drawing. The subjects are 216 female undergraduate students and 216 female of middle age(40~50) in Chin-ji city. The resulte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Impression factor of the stimulus was consisted of the 5 different demensions(attractiveness, elegance, activity, revelation, tenderness). Among there, attractiveness and elegance factors proved to be more important. In the attractiveness and tenderness, clothing style, color, tone combinations and perceiver's age had the significant effect. In the elegance and revelation, color and perceiver's age had the significant effect but in the activity, only color did not have the significant effect.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s of clothing style and color, style and tone combination, and color and perceiver's age on attractiveness and revelation were found. Interaction effect of color and tone combination was significant on the elegance and revelation, and that of color and perceiver's age was significant on tenderness.

Key words: Clothing style, Color, Tone combination, Impression formation, 의복 스타일, 색, 톤조합, 인상형성

I. 서 론

타인을 만났을 때, 우선 상대방을 판단하는 기준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단서에 의해 평가된다. 이 때 의복은 착용자를 지각하는데 있어서 외모와 아울러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의복을 구성하는 디자인요소 중에서도 색은 복식의 미적 인식에서 가장 먼저 지각된다. 또한 색채는 가장 표현적인 요소로써 복식의 느낌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인상은 의복 색 뿐 만 아니라, 의복형태, 의복착용자, 지각자, 상황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변인들이 동시에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선행연구들에서 사용되는 변인들은 연구자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주현(1990), 강혜원, 고애란(1991), 차미승(1992) 등은 의복형태와 의복색(단일색상)을, 이현화, 박찬부(1998), 이혜숙, 김재숙(1998) 등은 한복을 통한 색상배색을 단서로 하여 이들 단서들의 상호작용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연구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에서는 색상 조합시 톤이 통제된 상태에서 다루어지고 있어 톤을 연구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Winakor, Navarro(1987)는 무채색의

명도(어두운, 중간, 밝은)와 의복유형(dress, suit, sports)이 의복착용자의 호감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고 강경자(2001, 2002)는 한·미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복 치마·저고리의 배색에서 유채색의 튠변화에 따른 조화감 평가를 연구하였다. 이들 연구에서는 무채색과 유채색의 명도변화 즉 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튠에 의한 배색은 한복뿐만아니라 캐주얼이나 포멀한 의복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캐주얼이나 포멀 스타일의 옷을 각기 서로 다른 튠으로 배색하여 착용할 경우 착용자 인상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고,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의복스타일, 색상, 튠조합에 따른 착용자의 인상이 어떤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의미미분척도를 구성하고 그 요인구조를 밝히고자 하며, 의복스타일과 색상 및 튠조합을 변화시켜 봄으로써 이들 중 어떤 단서들이 상호작용하여 착용자의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타인에 대한 지각정도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고, 지각대상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인상이 형성된다. 인상형성은 여러단서들이 일관성있게 통합되어 형성된다. 타인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주는 의복관련 요인들을 살펴보면 의복의 영향, 의복착용자의 영향, 상황의 영향, 지각자의 영향으로 나누고 있다. 그 중 의복의 영향은 의복유형, 의복스타일, 색채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특히 의복스타일에 따라서 사람들의 인상은 다양하게 변화될 수 있다. Paek(1896)의 연구에서는 대담한, 보수적인, 드레시한, 캐주얼한 스타일의 4가지 여성복 중 보수적인 스타일과 캐주얼한 스타일의 착용자를 긍정적으로 성격으로 평가하였다. Hamid(1968)의 연구에서는 캐주얼한 스타일을 착용한 청소년은 긍정적인 평가와 성격특성을 동시에 받았고, Damhorst(1985)의 연구에서는 정장 스타일의 착용자가 캐주얼 스타일의 착용자보다 관리적으로 능력있고, 활동적이고 권위적인 사람으로 평가되었다. De long(1987)의 연구에서는 여자 대학생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고른 평가를, 중년여성은 어느 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평가 하였다. Bell(1991)의 연구에서는 젊은층은 캐주얼 스타일, 노년층은 격식차림이나 보수적 스타일에 대해 더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남

미우(1993)의 연구에서는 의복유형은 중년집단에서, 의복색은 대학생 집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단서로 나타났다. 고애란(1990)의 연구에서는 대학생보다 40대 중년남자가 suit의 색과 신체노출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색채는 의복에 있어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시각적 디자인의 요소로서 의복의 느낌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대인지각에 있어서 의복착용자의 표면효과(surface effect)로서 지각되며 진출-후퇴, 팽창-수축, 한-난색에 관한 연상 및 감정작용, 색의 상징성 등의 심리적 현상에 의해서 인상형성 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선행연구자인 壁谷久代(1980)과 上野靑一郎(1980)은 의복디자인에 있어서 색채가 형태나 구성선과 같은 다른 디자인 요소들보다 의복의 이미지 형성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이인자(1974)는 의복색채가 첫인상 형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의복구성요소라고 지적하였고, 이주현(1990)의 연구에서는 suit의 색에 따라 착용자의 인상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 이현화, 박찬부(1998)의 연구에서는 저고리와 치마가 다른 배색이면서 깃·고름색이 저고리색과 다른 경우에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이혜숙, 김재숙(1998)의 연구에서는 남색과 녹색조합이 다른 조합에 비해 긍정적 평가 이미지를, 노랑과 빨강의 조합이 매력적인 이미지를, 녹색과 노랑이 가장 부정적인 평가 이미지로 지각된다고 하였다. 차미승(1992)은 의복형태와 의복색채 이미지의 시각적 평가를 분석한 연구에서 현시성, 성숙성요인에서는 의복형태보다 의복색이 더 두드러진 효과를 보였다. 이정옥 등(1995)의 연구에서는 무채색 의복이 유채색 의복보다 평가성이 높은 반면, 활동성이 낮다고 하였다. Winakor와 Navarro(1987)는 의복유형과 무채색 의복의 명도가 의복착용자의 호감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의복유형은 체계적이고 강한 영향을, 명도는 비체계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박종희 등(2000)의 연구에서 무채색의 명도에 변화를 줄경우 의복형태에 따라 이미지에서 차이를 나타내었다. 강경자(2001, 2002)의 연구에서는 상·하다른색을 동일한 튠으로 조합한 경우 튠에 따라 조화감에서 차이를 보이고, 색상은 상·하동일하게 튠은 상·하 다르게 조합한 경우 조화감에 대한 지각반응에서 개인이나 문화간에 차이를 보여 명도차가 조화감평가에 깊이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에서 의복스타일, 의복색채, 지각자변인은

의복착용자의 인상형성시 영향을 미치고 특히 의복색과 톤은 중요한 의복단서 중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본 논문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의복스타일과 의복색 및 톤조합에 따른 의복착용자의 인상이 어떤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의미미분척도를 구성하여 그 요인구조를 밝힌다.

연구문제 2. 의복스타일, 의복색 및 톤조합, 관찰자 연령이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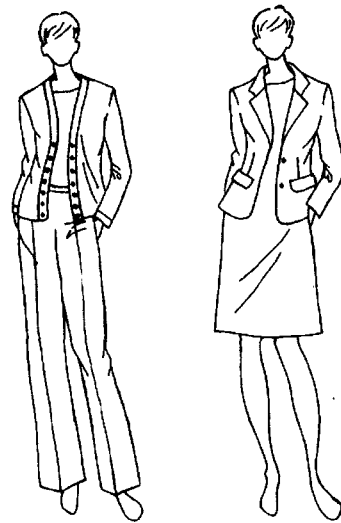
2. 측정도구

1) 자극물 선정 및 제작

인상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을 크게 의복의 영향, 의복착용자의 영향, 상황의 영향으로 대별하고 의복의 영향으로 의복유형, 스타일, 색상 등이 인상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론(강혜원, 2000)과 무채색이나 유채색의 명도변화 즉 톤이 호감도나 조화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강경자, 2001; Winkor, Navarro, 1987)에 근거하여 이들이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보고 본 연구에서는 의복스타일(2), 의복색(2), 톤조합(9)에 변화를 주어 자극물을 조작하였다.

먼저 의복스타일은 톤조합이 가능한 포멀(formal)과 캐주얼(casual) 스타일로 정하고 스타일별로 각각 3가지씩 패션잡지를 중심으로 선택하여 판단집단(대학원생, 대학생)에게 평가하게 한 후 최종적으로 포멀 스타일은 무릎아래 길이의 원피스에 자켓으로, 캐주얼 스타일은 펜츠에 가디건으로 선정하였다. 이 때 의복착용자의 체형과 얼굴, 헤어스타일 및 자세는 인상평가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통제하였다 <그림 1>.

의복의 색상은 무채색과 유채색으로 구분하고 유채색은 최근 많이 착용되고 있으며, 비교적 한(寒)·난(暖)의 구별에서 중간적 성격을 지니는 보라색으로 채택하였다. 톤(tone)은 선정된 보라색 및 무채색을 채도는 중간으로 통제시키고 명도에 변화를 준 라이트(light), 미디움(vivid), 덜(dull), 다크(dark)의 4가지



左: 캐주얼 스타일 右: 포멀 스타일

<그림 1> 그림자극물

톤으로 조작하였다. 이를 실용한국표준색표집(한국공업진흥청, 1991)의 색상에 준하여 판단집단에게 평가시킨 결과 4가지 톤으로 할 경우 자극물의 수가 많고, 덜톤과 다크톤은 어두운톤으로 다소 중복된다는 의견에 따라 덜톤을 제외시키고 최종적으로 라이트, 미디움, 타크의 3가지 톤으로 구분 선정하였다. 선정된 3가지 톤은 조합을 위해 유채색의 경우 라이트(light purple; L), 미디움(vivid purple; M), 다크(dark purple; D)의 세단계로 구분하였다. 이들 유채색의 세가지 톤을 라이트/라이트(light purple/light purple; L/L), 미디움/라이트(vivid purple/light purple; M/L), 다크/라이트(dark purple/light purple; D/L), 라이트/미디움(light Purple/vivid purple; L/M), 미디움/미디움(vivid purple/vivid purple; M/M), 다크/미디움(dark purple/vivid purple; D/M), 라이트/다크(light purple/dark purple; L/D), 미디움/다크(vivid purple/dark Purple; M/D), 다크/다크(dark purple/dark purple; D/D)의 9가지로 조작하고, 무채색 또한 명도에 변화를 준 세 단계 즉 라이트(white; L), 미디움(grey; M), 다크(black; D)로 구분하였다. 유채색과 같이 무채색에서도 3가지 톤을 서로 다르게 하여 라이트/라이트(white/white; L/L), 미디움/라이(grey/white; M/L), 다크/라이트(black/white; D/L), 라이트/미디움(white/Ggrey; L/M), 미디움/미디움(grey/grey; M/M), 다크/

미디움(black/grey; D/M), 라이트/다크(white/black; L/D), 미디움/다크(grey/black; M/D), 다크/다크(black/black; D/D)의 9가지 조합으로 조작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색상과 톤은 <표 1>과 같다.

자극물의 제작은 이상에서 선정된 포멀 스타일과 캐주얼 스타일의 그림을 CAD system(Gerber사의 photoshop 5.0 program)에서 scanning하여 컴퓨터에 입력시킨 다음 두 가지 스타일에 유채색과 무채색을 각각 9가지 톤 배색이 되도록 색상을 painting한 후 프린트하였다. 이 때 사용된 톤배색은 무채색은 무채색끼리, 유채색은 유채색끼리만의 톤조합이 이루어졌으며 각 스타일별로 무채색의 조합 9가지, 유채색 조합 9가지로 조작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의복스타일(2:캐주얼 스타일, 포멀 스타일), 의복색(2:유채색, 무채색), 톤조합(9:라이트/라이트, 미디움/라이트, 다크/라이트, 라이트/미디움, 미디움/미디움, 다크/미디움, 라이트/다크, 미디움/다크, 다크/다크)을 조합하여 만든 총 36(2x2x9)개의 자극물이 제작되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각 자극물의 조작내용은 <표 2>과 같다.

2) 실험설계

본 실험은 의복스타일(2)x의복색(2)x톤조합(9)x지각자의 연령(2: 중년여성, 여대생)의 4원 요인 설계로 이루어졌다. 총 36개의 자극물을 18개의 실험조합으로 구성하고 하나의 실험조합에 2개의 자극물을 포함시켰다. 각 실험조합당 피험자수는 중년여성과 여대생 각각 실험조합별로 12명씩 피험자간(between subject)설계에 의해 무선 배치되었다.

3) 의미미분척도

의미미분척도를 구성하기 위해 의복과 인상형성에 관한 선행연구들(강경자, 임지영, 1996; 김재숙, 이혜숙, 1998; 박찬부, 1997; 이경희, 1997; 이주현, 이현화, 1990; 차미승, 1992)에서 사용된 형용사쌍 중에서 의복과 색상을 표현하는데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31개의 형용사쌍과 색상과 톤을 표현하는데 적절한 10쌍을 추가하여 총 41쌍의 형용사쌍이 수집되었으나 최종적으로 35쌍의 형용사쌍이 도출되었다. 자극물속의 착용자 인상을 측정하는 의미미분척도는 형용사쌍 중간을 기준으로 하여 좌측의 긍정적 형용사에 7점, 우측의 부정적 형용사에 1점을 주어 자료를 수량화하였다.

<표 1> 자극물에 사용된 색상과 톤

색상	톤	무채색	유채색
라이트(Light)		N ₁₀ (흰색)	5P 4/8(라이트 보라)
미디움(Medium)		N ₅ (회색)	5P 4/12(비비드 보라)
다크(Dark)		N ₀ (검정색)	5P 2/8(다크 보라)

<표 2> 의복 자극물의 조작분류

톤조합	캐주얼 스타일(C)		포멀 스타일(F)	
	무채색(A)	유채색(P)	무채색(A)	유채색(P)
라이트/라이트(L/L)	CALL	CPLL	FALL	FPLL
미디움/라이트(M/L)	CAML	CPML	FAML	FPML
다크/라이트(D/L)	CADL	CPDL	FADL	FPDL
라이트/미디움(L/M)	CALM	CPLM	FALM	FPLM
미디움/미디움(M/M)	CAMM	CPMM	FAMM	FPMM
다크/미디움(D/M)	CADM	CPDM	FADM	FPDM
라이트/다크(L/D)	CALD	CPLD	FALD	FPD
미디움/다크(M/D)	CAMD	CPMD	FAMD	FPMD
다크/다크(D/D)	CADD	CPDD	FADD	FPDD

C: Casual, F: Formal, A: Acromatic, P: Purple, L: Light, M: Medium, D: Dark
 의복스타일별 조합-포멀 스타일: 자켓/원피스
 캐주얼 스타일: 가디건/센츠

3. 연구대상 및 자료분석

본 조사의 피험자는 진주시내에 거주하는 여대생과 40~50대의 중년여성으로 각각 216명씩, 모두 43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여자 대학생은 의류학, 식품영양학, 영문학, 건축학 등 다양한 전공자로 구성되어 강의실에서 평가하도록 하였고, 중년 여성은 아파트나 주택을 방문하여 이루어졌다. 자료수집은 임의표집에 의하였고, 2001년 5~6월, 오전 11시~오후 3시 사이에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AS program을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였고, 의복스타일과 의복색, 톤조합에 따른 여성의 인상차원에 대한 요인구조를 밝히기 위해 35쌍의 형용사쌍을 주성분 분석방법과 Varimax의 직교회전을 이용하여 요인 분석하였다. 도출된 인상요인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한 결과 총 35개 형용사쌍에 대해 $\alpha = .93$ 으로 용어들은 내적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매력성, 품위성, 능력·활동성, 현시성, 온유성 요인의 신뢰

<표 3> 의복스타일, 색상, 톤조합 및 지각자 연령에 의한 인상차원분석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공통성(h ²)
세련된-촌스러운	.839	.187	.144	.136	.121	.793
멋있는-멋없는	.833	.157	.171	.168	.103	.788
보기좋은-보기싫은	.823	.187	.177	.026	.223	.796
자연스러운-어색한	.795	.241	.138	-.071	.220	.764
어울리는-어울리지않는	.745	.282	.154	.075	.105	.677
입고싶은-입고싶지않은	.742	.110	.176	-.057	.181	.630
매력있는-매력없는	.558	.179	.288	.395	.192	.620
유행에앞선-유행에뒤진	.436	.104	.370	.387	.112	.501
집잡은-발랄한	.072	.776	-.138	-.101	.095	.646
고상한-야한	.124	.703	-.026	-.051	.096	.523
중후한-경쾌한	-.011	.692	-.251	-.008	.000	.543
상속한-귀여운	.189	.686	-.075	.190	.000	.549
품위있는-품위없는	.305	.679	.118	.092	.105	.589
차분한-들뜬	.266	.665	.113	-.215	.145	.594
안정된-불안정한	.358	.594	.177	-.101	.263	.593
깔끔한-깔끔하지않은	.492	.524	.280	.036	.116	.611
오성적인-감성적인	.428	.431	.101	-.032	-.167	.408
활동적인-비활동적인	.083	-.009	.768	.106	-.066	.613
활력을주는-가라앉게하는	.204	-.105	.716	.322	.164	.696
선명한-흐린	.216	.002	.610	.430	.126	.620
즐거움-우울함	.265	-.049	.600	.171	.394	.618
어려보이는-나이들어보이는	.289	-.277	.523	.006	.248	.496
시원한-답답한	.279	.101	.521	.186	.271	.469
친숙한-친숙하지않은	.349	.301	.439	-.234	.351	.584
회려한-수수한	.043	-.108	.192	.796	.177	.716
눈에잘띄는-평범한	.033	-.064	.196	.493	.179	.706
강렬한-무난한	-.054	-.044	.174	.716	-.113	.562
시치스러운-검소한	.070	-.003	-.007	.702	.106	.509
현대적인-전통적인	.383	.269	.198	.462	.005	.472
부드러운-딱딱한	.225	.158	.087	.081	.769	.682
따뜻한-차가운	.029	.038	.260	.178	.653	.529
여성스러운-여성스럽지않은	.328	.290	-.083	.232	.609	.625
밝은-어두운	.192	-.081	.372	.392	.490	.577
청순한-요염한	.140	.251	.268	-.292	.475	.467
신뜻한-치칙한	.398	.017	.455	.266	.459	.649
고유치	11.015	4.920	2.342	1.732	1.218	21.227
전체 변량의 %	31.5	14.1	6.7	5.0	3.5	60.8
공통 변량의 %	51.8	23.2	11.0	8.2	5.8	100.0

도 계수는 각각 .92, .87, .83, .80, .79로 나타났다. 단서들이 각 인상차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변량분석과 보조적 분석으로 다중분류분석(MCA: Multiple Classific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의복스타일, 색상, 톤조합에 의한 인상차원의 요인분석

의복스타일, 의복색 및 톤조합에 변화를 주어 제작한 총 36개의 자극물에 대한 인상차원을 밝히기 위해

35쌍의 형용사쌍으로 평가한 자료를 요인분석한 결과 아이겐값 1.0이상으로 하여 같은 형용사쌍들이 5개의 요인으로 묶이어서 도출되었다.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표 3>과 같다.

요인 1은 전체변량에 대한 설명력이 31.5%로 5개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고 세련된-촌스러운, 매력있는-매력없는 등의 8개의 형용사쌍으로 구성되어 '매력성 요인'이라 명명하였고, 이는 강경자, 임지영(1996), 오은주(1998), 이혜숙, 김재숙(1998)의 매력성 인자, 이주현, 조근호(1995)의 평가 매력인자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요인 2는 집잡은-발랄한, 고상한-야한, 품위있는-품위없는 등의 9개의

형용사쌍으로 구성되어 ‘품위성 요인’이라 하였고, 전체변량에 대한 설명력은 14.1%로 나타났다. 요인 3은 활동적인-비활동적인, 활력을주는-가라앉게하는 등의 7개의 형용사쌍이 포함되어 ‘활동성 요인’이라 명명하였다. 활동성 요인의 구성인자는 이경희(1991)의 편안성 요인, 남미우, 강혜원(1996)의 활동성 요인과 유사하게 나타났고, 전체변량에 대한 설명력은 6.7%였다. 요인 4는 화려한-수수한, 눈에잘띄는-평범한

등의 5개의 형용사쌍으로 구성되어 ‘현시성 요인’이라 명명하였다. 현시성 요인은 차미승(1992)의 현시성 요인, 강경자, 임지영(1996)의 독특성 요인, 강혜원, 고애란(1991)의 실용성 요인과 유사하였고, 전체변량에 대하여 5.0%의 설명력을 보였다. 요인 5는 부드러운-딱딱한, 밝은-어두운 등의 6개의 형용사쌍으로 구성되어 ‘온유성 요인’이라 명명하였고, 전체변량에 대하여 3.5%의 설명력을 보였다. 온유성 요인의

<표 4> 의복스타일과 색상 및 톤조합이 인상에 미치는 영향

변량원		매력성		품위성		활동성		현시성		온유성		
		평균 자승합	F값	평균 자승합	F값	평균 자승합	F값	평균 자승합	F값	평균 자승합	F값	
주 요 과	의복스타일(A)	12.83	15.88***	0.13	0.15	13.62	16.24***	2.22	3.23	16.20	21.70***	
	의복색(B)	32.42	40.12***	33.08	38.42***	1.59	1.90	133.99	194.73***	17.04	22.83***	
	톤조합(C)	4.28	5.30***	0.83	0.97	2.81	3.36***	0.58	0.86	8.83	11.84***	
	지각자 연령(D)	7.93	9.82**	100.11	116.26***	152.67	181.95***	7.86	11.44***	49.78	66.67***	
2원 상호 작용 효과	A×B	6.70	8.30**	1.62	1.89	1.30	1.55	5.46	7.95**	1.56	2.09	
	A×C	1.59	1.97*	0.39	0.45	1.19	1.42	1.83	2.67**	0.94	1.26	
	A×D	0.00	0.00	11.48	13.33***	1.96	2.34	1.65	2.40	0.12	0.16	
	B×C	0.63	0.79	1.94	2.26*	0.80	0.96	5.82	8.47***	0.56	0.76	
	B×D	21.94	27.15***	2.44	2.84	0.50	0.60	18.86	27.41***	2.93	3.94*	
	C×D	1.33	1.65	1.18	1.38	0.68	0.82	2.12	3.08**	1.40	1.88	
3원상호 작용효과	A×B×C	0.39	0.48	0.46	0.54	0.63	0.76	0.34	0.50	1.35	1.81	
	A×B×D	0.13	0.16	0.02	0.03	0.24	0.30	0.11	0.17	0.00	0.00	
	A×C×D	0.66	0.82	0.47	0.55	0.59	0.70	1.93	2.81**	0.45	0.61	
	B×C×D	1.73	2.15*	2.19	2.55**	1.50	1.79	1.86	2.71**	1.28	1.71	
4원상호 작용효과	A×B×C×D	0.99	.23	1.22	1.42	0.89	1.07	0.32	0.48	0.78	1.05	
		변인	수준	편차	eta 값	편차	eta 값	편차	eta 값	편차	eta 값	
M C A	의복 스타일	캐주얼 스타일		-.12		.02		.12		-.04		-.14
		포멀 스타일		.12		-.02		-.13		.04		.14
	의복색	유채색		.20		-.20		.04		-.41		-.14
		무채색		-.21		.20		-.04		.42		.14
	톤 조 합	라이트/라이트		-.13		.18		.09		-.08		.56
		미디움/라이트		.08		-.10		.15		-.07		.26
		다크/라이트		.24		-.03		.20		-.04		.02
		라이트/미디움		-.15		-.02		.03		-.05		.08
		미디움/미디움		-.42		-.05		-.10		.18		-.15
		다크/미디움		.07		-.02		-.12		.08		-.18
		라이트/다크		.30		-.03		.17		-.02		.16
		미디움/다크		-.01		-.05		-.29		-.06		-.23
	다크/다크		.02		.13		.09		.16		-.55	
	지각자 연령	여대생		-.09		.33		-.41		.09		-.23
중년층			.10		-.37		.45		-.10		.26	
Multiple R		.328		.219		.210		.434		.378		
Multiple R ²		.108		.048		.044		.188		.143		

*p<.05, **p<.01, ***p<.001

구성인자는 강경자, 임지영(1996)의 운유성 요인, 이주현, 조근호(1995)의 부드러움 요인, 이현화, 박찬부(1997)의 친화 요인, 이혜숙, 김재숙(1998)의 현시성 요인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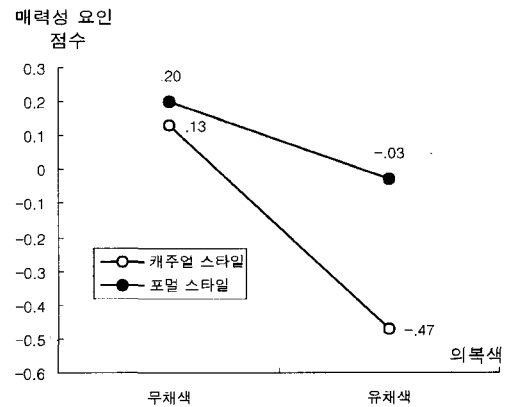
회귀모형 방식에 의하여 산출된 요인점수들의 결과 해석은 요인점수가 높을수록 매력성 요인에서는 세련되고 멋있고 자연스러우며 매력적인 것으로, 품위성 요인에서는 점잖고 고상하며 중후하고 품위있는 것으로 지각되고 활동성 요인에서는 활동적이고 즐거우며 활력을 주는 것으로, 현시성 요인에서는 화려하고 눈에 띄며 사치스러운 것으로 운유성 요인에서는 부드럽고 따뜻하고 여성스러우며 밝고 청순한 것으로 지각되는 것을 의미한다. 도출된 5개의 인상 요인이 전체 변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0.8%로 나타났다 이 중 매력성과 품위성 요인이 75%를 차지하여 이 두 요인이 의복스타일, 의복색과 톤조합 및 지각자의 연령에 따른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중요한 차원인 것으로 볼 수 있다.

2.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의복스타일, 색상, 톤조합의 영향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의복단서 즉 의복스타일, 의복색 및 톤조합이 지각자의 연령에 따라 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변량분석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의복단서인 의복스타일, 의복색, 톤조합은 착용자의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단서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이들 단서들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인상차원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또한 활동성요인에서는 상호작용효과가 유의적이지 않아 MCA의 편차값에 근거한 eta값을 통해 주효과의 영향력을 설명하였다. 의복착용자의 인상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단서들간의 유의적인 상호작용 효과를 <그림 2~12>으로 설명하였고 이를 인상차원별로 고찰하고자 한다.

1) 매력성 차원

매력성 요인을 <표 4>에서 보면 의복스타일, 의복색, 톤조합과 연령 모두에서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고 특히 의복색은 지배적인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매력성 인상차원에 영향을 주는 상호작용효과는 의복스타일과 의복색, 의복스타일과 톤조합, 의복색과 연령에서 나타났다.



<그림 2> 매력성 인상차원에 미치는 의복스타일과 의복색의 상호작용효과

먼저 의복스타일과 의복색간의 상호작용효과를 <그림 2>에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의복스타일에 관계없이 무채색 의복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멋있고 세련되고 매력적인 것으로, 유채색의 의복은 멋없고 촌스럽고 어색한 것으로 지각되어 매력성 인상차원에는 의복스타일보다 의복색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무채색 의복은 스타일간의 인상차이가 크지 않지만 유채색의복에서는 스타일간의 인상차이가 크게 나타나 원피스와 자켓으로 포멀하게 입는 것이 더 매력적인 인상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매력성 인상차원에 영향을 주는 의복스타일과 톤조합간의 상호작용효과를 <그림 3>에서 보면, 두가지 의복스타일 모두 배색톤이 다크/라이트, 라이트/다크, 다크/미디움으로 조합될 때 매력있는 것으로, 반면 라이트/미디움, 미디움/미디움, 미디움/다크는 매력이 없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그리고 라이트/라이트, 미디움/라이트, 다크/다크의 톤조합의 경우 포멀 스타일은 매력있는 것으로 캐주얼 스타일은 매우 매력없는 것으로 지각되어 같은톤내에서 스타일간의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캐주얼 스타일은 포멀 스타일보다 매력적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어, 톤조합에 의한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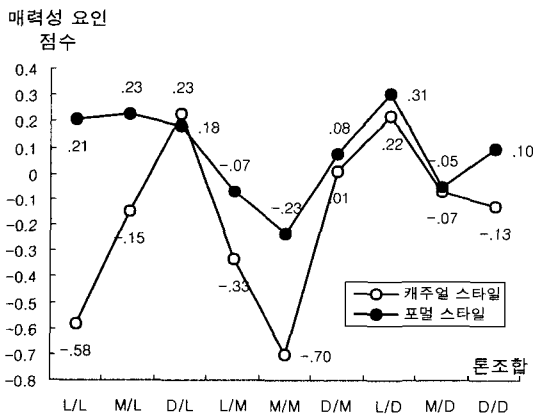
매력성 인상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의복색과 연령간의 상호작용효과를 <그림 4>에서 살펴보면 의복색이 무채색인 경우 두 집단 모두 매력적으로 평가하였고 의복색이 유채색인 경우 중년여성은 매력적이게 여대생은 매력적인 것으로 않는 것으로 평가하여 연령간에 차이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여대생들에게 의복색의 영향이 매력성 이미지에 크게 작용하는 것은

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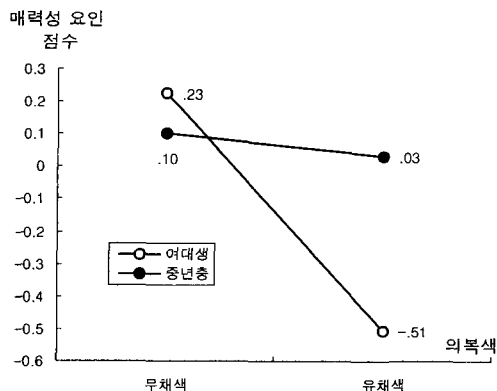
2) 품위성 차원

품위성 요인을 <표 4>에서 보면 의복색, 연령은 주 효과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고, 톤조합은 의복색과, 의복스타일은 연령과 상호작용하여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의복스타일과 연령의 상호작용효과를 <그림 5>에서 보면 여대생들은 의복스타일에 관계없이 모두 고상하고 품위있는 것으로 지각하였고, 이러한 경향은 캐주얼 스타일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반면 중년여성들은 두 가지 의복스타일 모두 품위없는 것으로 지각하여 여대생들과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고 캐주얼 스타일일 때 더 야하고 품위없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즉 의복스타일보다 지각자연령이 품위성 인식에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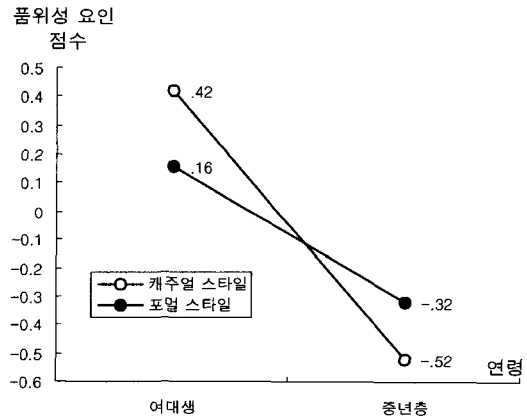


<그림 3> 매력성 인식차원에 미치는 의복스타일과 톤조합의 상호작용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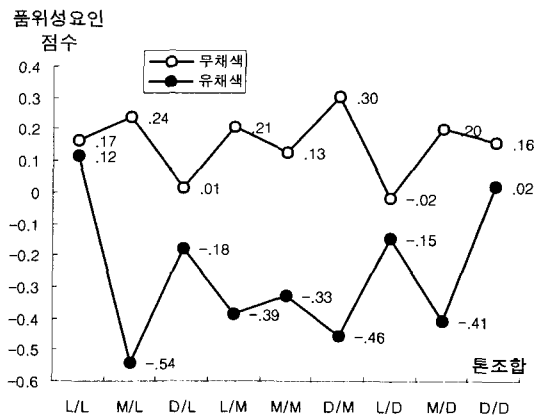


<그림 4> 매력성 인식차원에 미치는 의복색과 지각자 연령의 상호작용효과

다음은 품위성 인식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의복색과 톤조합의 상호작용효과를 <그림 6>에 나타내었다. 의복색에 관계없이 라이트/라이트, 다크/다크의 톤으로 조합했을 때 점잖고 고상하고 품위있는 것으로 반면 라이트/다크의 톤으로 조합되었을 때 의복색에 관계없이 품위없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나머지 6개의 톤 조합에서 조합이 무채색인 경우에는 고상하고 점잖고 품위있는 것으로 지각되었으며, 이 중 다크/미디움 즉 검정색/회색의 조합인 경우에 가장 품위있는 인상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유채색인 경우는 6가지 톤조합 모두에서 품위없는 인상을 주었으며 특히 미디움/라이트의 톤조합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즉 톤의 조합 상태가 지각자에게 뚜렷하게 지각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의복색과 상호작용으로 지각단계에서 통합되어 품위있는 인상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



<그림 5> 품위성 인식차원에 미치는 의복스타일과 지각자 연령의 상호작용효과



<그림 6> 품위성 인식차원에 미치는 의복색과 톤조합의 상호작용효과

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활동성 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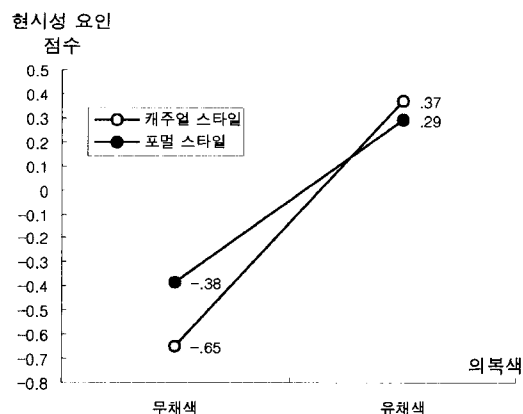
활동성 차원을 <표 4>에서 보면 의복스타일, 톤조합, 연령은 주효과로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고 특히 지각자의 연령이 활동성 인상차원에 미치는 영향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성요인에서는 상호작용효과가 유의적이지 않아 MCA의 평균값 차를 <표 4>에서 비교해보면, 의복스타일은 캐주얼 스타일, 의복색은 유채색, 톤조합은 다크/라이트, 라이트/다크, 미디움/라이트일 때 선명하고 활력을 주고 어려보이고 활동적인 것으로 지각되었다.

4) 현시성 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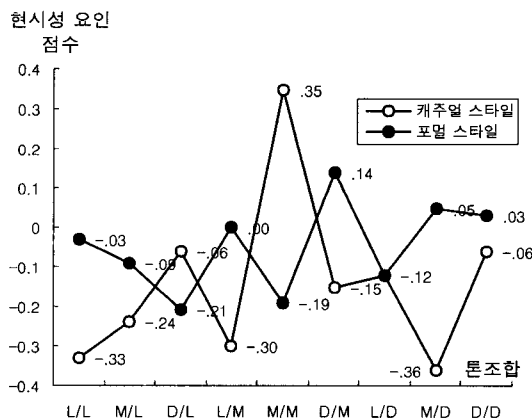
현시성 차원을 <표 4>에서 보면 의복색과 지각자의 연령은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고 특히 의복색은 현시성 인상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적인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복스타일과 톤조합은 주효과로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다른 변인들과 함께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현시성 인상차원에 영향을 주는 의복스타일과 의복색간의 상호작용효과는 <그림 7>에 나타내었다. 의복스타일에 관계없이 의복색이 무채색인 경우 현시성이 낮아 수수하고 평범하고 전통적인 것으로 지각되었으며, 이러한 인상은 캐주얼 스타일에서 더 강하게 지각되었다. 반면 의복색이 유채색인 경우는 두 가지 의복스타일 모두 화려하고 눈에 띄고 강렬한 것으로 지각되었다. 따라서 현시성 인상차원에는 의복스타일보다 의복색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매력성 인상차원과는 상반된 평가로 의복색은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단서가 되지만, 그 영향력은 인상차원에 따라 다르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현시성 인상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의복스타일과 톤조합의 상호작용효과를 <그림 8>에서 보면 톤조합의 유형에 따라 의복스타일간에 현시성 이미지가 일관성있는 차의 방향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이트/라이트, 미디움/라이트, 다크/라이트, 라이트/다크의 톤조합은 의복스타일에 상관없이 수수하고 무난하며 전통적인 이미지로 지각되었고 라이트/미디움, 다크/미디움, 미디움/다크, 다크/다크의 톤으로 조합할 경우 포멀 스타일일 때, 미디움/미디움으로 톤이 조합된 경우는 캐주얼 스타일 일때 현시성이 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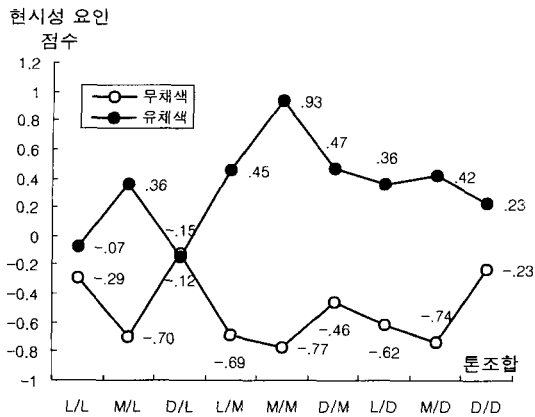
<그림 7> 현시성 인상차원에 미치는 의복스타일과 의복색의 상호작용효과



<그림 8> 현시성 인상차원에 미치는 의복스타일과 톤조합의 상호작용효과

은것으로 지각되었다. 이와 같이 의복스타일과 톤조합에 따라 인상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동일한 스타일의 의복이라도 톤조합의 유형에 따라 현시성 인상의 정도가 다르게 지각됨을 의미한다.

현시성 인상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의복색과 톤조합의 상호작용효과를 <그림 9>에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의복색에 관계없이 라이트/라이트, 다크/라이트의 톤조합은 현시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의복색이 유채색인 보라는 미디움/라이트나 라이트/미디움, 미디움/미디움, 다크/미디움, 라이트/다크, 미디움/다크, 다크/다크의 톤으로 조합될 경우 화려하고 눈에 잘 띄고 강렬하고 사치스러운 것으로, 특히 미디움/미디움의 조합일 때 현시성 인상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의복색이 무채색일때는 9개의 톤조합 모두에서 수수하고 평범하고 무난하고 검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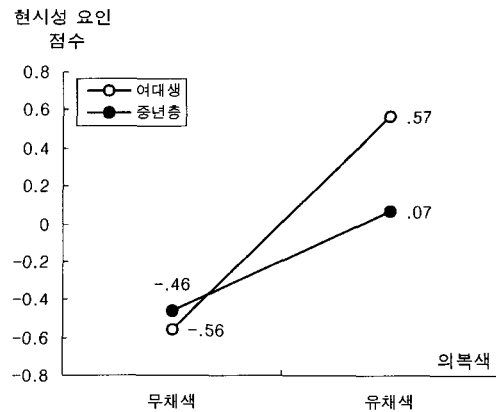


<그림 9> 현시성 인상차원에 미치는 의복색과 톤조합의 상호작용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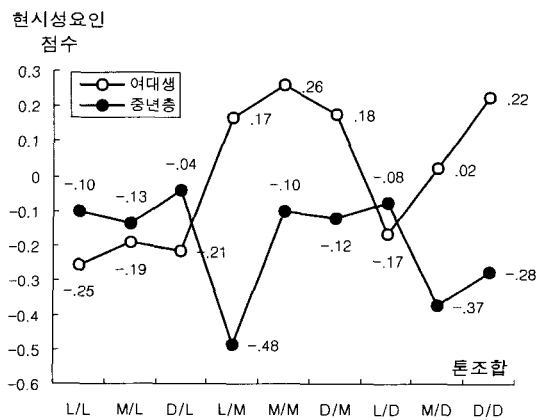
하고 전통적인 것으로 지각하여 유채색의 경우와는 상반된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 중에서도 미디움/라이트인 회색/흰색, 미디움/미디움인 회색/회색, 미디움/다크인 회색/검정색의 배색으로 조합될 때 매우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무채색 중 중간톤인 회색의 영향이 부정적인 인상형성에 크게 작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톤조합이 독립된 요인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색상과 상호작용하므로서 동일한 색상도 톤의 조합에 따라서 현시성 이미지는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현시성 인상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의복색과 연령의 상호작용효과를 <그림 10>에서 보면 연령보다 의복색의 영향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두 연령집단 모두 의복색이 무채색인 경우 모두 현시성을 낮게, 유채색인 경우 현시성을 높게 평가 하였다. 이러한 인상은 중년여성들 보다 여대생들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나 두 집단간에 차이를 보였다.

다음으로 현시성 인상차원에 미치는 톤조합과 연령의 상호작용효과를 <그림 11>에서 보면 라이트/라이트, 미디움/라이트, 다크/라이트, 라이트/다크의 톤조합은 연령집단에 상관없이 부정적으로 지각되어 수수하고 검소한 인상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라이트/미디움, 미디움/미디움, 다크/미디움, 미디움/다크, 다크/다크의 톤조합에서는 연령간에 큰 차이를 나타내어 여대생들은 이들 조합에 대한 인상을 화려하고 눈에 잘 띄고 강렬한 것으로, 지각하였으나 중년여성들은 반대로 부정적으로 지각하였다. 특히 연령간에 가장 큰 차이를 보인 것은 라이트/미디움, 다크/다크의 톤조합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연령집단에 따라 혹은 같



<그림 10> 현시성 인상차원에 미치는 의복색과 지각자연령의 상호작용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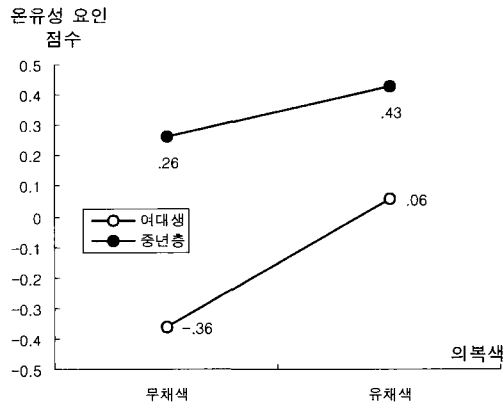
<그림 11> 현시성 인상차원에 미치는 톤조합과 지각자연령의 상호작용효과

은 연령층에서도 톤조합의 유형에 따라 현시성 이미지가 다르게 지각됨을 알 수 있다.

5) 온유성 차원

온유성 요인을 <표 4>에서 보면 의복스타일, 의복색, 톤조합, 연령의 모든 변인들이 독립적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고, 특히 연령이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유성 인상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의복색과 지각자연령의 상호작용효과를 <그림 12>에 나타내었다. 중년여성들은 의복색에 관계없이 온유성을 높게 평가하였고, 반면 여대생들은 의복색이 무채색인 경우 매우 딱딱하고 칙칙한 인상으로, 유채색인 경우 밝고 산뜻하고 부드러운 인상으로 지각하여 의복색에 따른 인상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 온유성 인상에는 의복색



<그림 12> 온유성 인상차원에 미치는 의복색과 지각 자연형의 상호작용효과

보다 연령에 의한 영향이 더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의복스타일, 의복색, 톤조합의 변화에 따른 인상차원을 평가하기 위해 35쌍의 의미미분 척도를 요인분석하여 인상차원을 밝히고, 이들 단서들과 연령이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의복스타일과 의복색 및 톤조합에 따른 의복착용자의 인상차원을 요인분석한 결과 매력성 요인, 품위성 요인, 활동성 요인, 현시성 요인, 온유성 요인의 5개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 요인 중에서 매력성 요인, 품위성 요인이 중요한 차원으로 나타났다.

2. 의복스타일, 의복색, 톤조합 및 지각자의 연령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인상차원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었다.

- 매력성 차원의 인상에는 의복스타일, 의복색, 톤조합, 지각자의 연령 모두 독립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의복 색은 영향력있는 단서로 작용하였다. 또한 의복스타일과 의복색, 의복스타일과 톤조합, 의복색과 지각자연령의 상호작용으로 지각단계에서 통합되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의복스타일에 관계없이 유채색보다 무채색 의복이 매력적으로 지각되어 스타일보다 의복색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톤이 어떻게 조합되는냐에 따라 매력적인 인상은 스타일간에 차이를 보여 대체로 포멀스타일이 캐주얼스타일보다 매력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중년여성은 색의 영향을 받지않는데 반해 여

대성은 무채색을 매력있는 것으로 유채색을 아주 매력없는 것으로 지각하여 연령간에 따라 의복색의 영향이 다르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품위성 차원의 인상에는 의복색, 지각자의 연령이 독립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의복스타일과 연령, 의복색과 톤조합의 상호작용으로 지각단계에서 통합되어 영향을 미쳤다. 그 영향력은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여 캐주얼이든, 포멀이든 스타일에 관계없이 여대생은 품위있는 것으로 중년여성은 품위없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또한 라이트/라이트, 다크/다크의 조합일 때 품위있는 것으로, 미디움/라이트, 다크/라이트, 라이트/미디움, 미디움/미디움, 다크/미디움, 미디움/다크의 톤조합에서는 유채색보다 무채색이 품위있는 인상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활동성 차원의 인상에는 의복스타일, 톤조합, 지각자 연령이 독립적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이들 독립변인들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 현시성 차원의 인상에는 의복색과 지각자 연령이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특히 의복색이 두드러진 단서로 작용하였다. 의복스타일과 톤조합은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다른 단서들과 상호작용하여 현시성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의복스타일보다 의복색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 스타일에 상관없이 무채색일때는 현시성이 매우 낮았다. 이는 매력성 인상차원과는 상반된 평가로 의복색의 영향력은 인상차원에 따라 다르게 작용됨을 알 수 있다. 의복스타일과 톤조합에서는 동일한 스타일의 의복이라도 톤 조합의 유형에 따라, 또한 의복색상과의 상호작용에서는 동일한 색상도 톤을 어떻게 조합시키느냐에 따라 현시성의 이미지는 차이를 보였다. 중년여성, 여대생 모두 유채색일 때 현시적인 것으로 평가하였고 이러한 경향은 중년여성보다 여대생에게서 강하게 나타났다.

- 온유성 차원의 인상에서는 의복스타일, 의복색, 톤조합, 지각자 연령 모두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 중 지각자 연령이 가장 두드러진 단서로 나타났다. 즉, 중년여성들은 의복색에 상관없이 온유한 이미지로 지각한데 반해서 여대생들은 유채색의 의복을 밝고 부드러운 것으로 무채색의 의복을 딱딱하고 차가운 이미지로 지각하여 지각자의 연령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다.

이상에서 의복스타일과 의복색, 톤조합이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력을 밝히고 이들 단서들

의 조합상태에 따라 그 인상차원이 다르게 지각됨을 알 수 있었다. 즉 스타일별로 색상과 톤조합에 의한 배색을 통해 다양한 인상차출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이는 인상형성시 자극정보들의 의미가 각기 고정되어 있지않고 여러 정보들이 서로의 관계속에서 어떻게 하나로 묶여져 전반적인 인상으로 통합되는가를 설명한 형태주의적 접근이론을 지지해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한복이 아닌 의복으로 의복스타일, 색상, 톤조합이 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톤배색을 다룬 연구가 처음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3. 본 연구의 제한점은 자극물로 선 그림만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인간의 인체에 직접 착용했을 때 나타나는 인상의 차이는 고려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또한 인상형성의 단서로서 의복스타일(2), 의복색(2), 톤조합(9)을 각기 통제된 상태에서 실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복색과 톤조합에 의한 차이는 다소 규명되었으나 본 연구에 포함시키지 못한 색상이나 의복스타일 그리고 착용자의 체형과 상황 등의 영향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강경자. (2001). 한복배색의 조화감에 대한 한·미 여대생의 지각반응 연구(제1보) -톤 인 톤배색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5(4), 731-742.
- 강경자. (2002). 한복배색의 조화감에 대한 한·미 여대생의 지각반응 연구(제2보) -톤 온 톤배색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6(3/4), 443-453.
- 강경자, 임지영. (1996). 넥타이색과 무늬가 남성복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0(5), 753-768.
- 강혜원. (2000). *의상사회심리학* 교문사.
- 강혜원, 고애란. (1991). 여자한복의 인상형성 연구 -디자인의 변형과 배색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5(2), 211-227.
- 고애란. (1990). *Suit의 색과 신체노출이 정숙성 인상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남미우. (1993). *상황·의복단서 및 관찰자 변인이 남녀 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남미우, 강혜원. (1996). 관찰자의 의복태도가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0(2), 241-256.
- 박기완 역, Noriyuki Chimura 原著. (1997). *복장의 색채*. 서울유신문화사.
- 박종희, 최재란, 류숙희. (2000). 4가지 무채색 의복의 형태 변화에 따른 시각적 이미지. *한국의류학회지*, 24(8), 1177-1186.
- 이경희. (1991). *의복형태 이미지의 시각적 평가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인자, 이경희, 신호정. (2001). *의상심리*. 교문사.
- 이인자. (1974). 성격과 의복 디자인 선호간의 상관관계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4(2), 785-799.
- 이정옥, 권미정, 박영실. (1995). 한국도시여성의 얼굴색과 의복색과의 배색 이미지에 관한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3(2), 167-180.
- 이주현. (1990). *의복단서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주현, 조궁호. (1995). 의상디자인요소가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제1보) -Dress 및 Pants/Blouse의 형태와 색채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9(5), 747-764.
- 오은주. (1998). *자켓과 스커트의 비율변화에 따른 시각적 이미지 연구*. 부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현화, 박찬부. (1997). 의복단서, 지각자변인이 여자한복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I) -의복단서를 중심으로-. *복식학회지*, 32, 313-332.
- 이현화, 박찬부. (1998). 지각자의 성격변인과 의복단서의 인상효과에 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2(3), 341-352.
- 이혜숙, 김재숙. (1998). 복식색과 색조합의 이미지 지각(제1보) -여자 저고리·치마를 중심으로 한 준실험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2(5), 597-606.
- 차미승. (1992). *의복형태와 색채이미지의 시각적 평가와 분석*. 부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승희, 김수옥. (1995). *심리학개론*. 박영사.
- 홍대식. (1990). *사회심리학*. 박영사.
- 한국공업진흥청. (1991). *실용한국표준색표집*. KBS한국색채연구소.
- 壁谷久代, 加藤雪枝, 檜山藤子. (1980). 被服に對する色彩と圖形の知覺について. *纖維製品消費科學志*, 21(8), 35-42.
- 上野青一郎. (1980). 衣服の嗜好に關る統計的研究. *纖維製品消費科學志*, 21(7), 42-48.
- Anderson, N. H. (1965). Averaging vs Adding as a Stimulus-Combination rule in Impression Form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70, 394-400.
- Asch, S. E. (1946). Forming Impression of Personality.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41, 258-290.
- Bell, E. L. (1991). Adult's Perception of Male Garment Styles. *Clothing & Textile Research Journal*, 10(1), 8-12.
- Delong. (1987). *The Way We Look*. Iowa State University Press.
- Hamid, P. (1968). Style of Dress as a Perceptual Cue in Impression Formation. *Perceptual and Motor Skills*, 26, 904-906.
- Paek, S. L. (1986). Effect of Garment Style on the Perception of Personal Traits. *Clothing & Textile Research Journal*, 5(1), 10-16.
- Geitel Winakor, Rebecca Navarro. (1987). Effect of Achromatic Value of stimulus on Responses to Women's Clothing Style. *Clothing & Textile Research Journal*, 5(2).